

'조카티비', 스타와 조카들과의 케미 빛났다



'조카티비'가 시작부터 조카들과의 빛나는 케미를 자랑했다.

지난 17일 방송된 tvN '내 손안에'

키즈 크리에이터의 일상 공개하며 눈길 끌어

조카티비(이하 '조카티비')에는 파워 키즈 크리에이터 조카와 스타들이 함께 조우했다.

이날 하연수는 존앤맥 형제와 만나게 됐다. 하연수는 두 형제와 만나기에 앞서 자신의 집을 공개하면서 내추럴한 면모를 자랑했다. 음식 대신 화장품과 필름이 가득한 냉장고는 물론 자신의 비밀 상자 속 다양한 물품을 보여줘 눈길을 끌었다.

존맥형제와 하연수는 한옥에서 첫 만남을 가졌다. "한국 전통 문화를 알길 바란다"는 하연수의 마음이 담긴 초대였다.

이들은 붓과 먹으로 그림을 그리며 서로 가까워지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자신들의 콘텐츠 ASMR을 제작하기로 결정했다.

존맥형제와 하연수는 함께 전과 꼬지를 만들었고, 직접 이를 시식하면서 ASMR을 제작했다. 세 사람이

직접 살린 바삭한 전과 꼬지의 식감은 패널과 시청자의 귀를 자극했다. 이어 '어썸하든'으로 활동하고 있는 키즈 크리에이터 나하은과 김완선의 만남도 공개됐다.

김완선과 나하은은 서로 춤을 추면서 노래 맞추기 게임에 나섰다. 특히 김완선은 레드벨벳의 '빨간 맛', 선미의 '사이렌', 방탄소년단의 '상남자'까지 완벽하게 커버하면서 변하지 않는 댄싱퀸의 면모를 자랑했다.

두 사람은 '춤'이라는 공통분모를 활용해, 커버댄스 컬래버레이션 콘텐츠를 제작하기로 결정했다. 약한 달간의 스파르타 연습 끝에 두 사람은 방탄소년단의 '불타오르네'를 완벽하게 그려내며 박수를 받았다.

'조카티비'는 쉽게 알 수 없었던 키즈 크리에이터의 일상을 공개하

며 눈길을 끌었다. 성인 크리에이터 못지 않게 자신들의 특색적인 콘텐츠를 만들어낸 이들의 열정은 시청자들도 박수치게 만들었다.

패널들과의 찰떡케미 역시 눈길을 끌었다. 춤이라는 공통점으로 만난 김완선과 나하은은 세대차이를 극복하고 방탄소년단의 커버댄스로 하나가 됐다. 한국의 문화를 알려주고 싶다는 하연수의 마음 역시 존맥 형제를 사로잡았다. 한옥에서 그려낸 ASMR 콘텐츠는 신서함을 선사하기 충분했다.

여기에 아직 공개되지 않은 케미 역시 궁금증을 모은다. 세븐틴의 민규와 정한, 노라조 역시 키즈 크리에이터와 자체 콘텐츠를 제작한 상황. 하연수, 김완선 못지 않은 이들의 콘텐츠 또한 재미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시작부터 백점 케미를 자랑한 '조카티비'가 춤과 ASMR을 넘어 또 어떤 새로운 콘텐츠를 공개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1박2일' 동시간대 시청률 1위...홍차 쇼케이스 '최고의 1분'



'1박 2일'이 매슬로우 욕구위계 이론을 바탕으로 한 '일곱 욕망들의 대결'로 동시간대 시청률 1위를 수상했다.

18일 시청률 조사기관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17일 저녁 방송된 KBS2 예능프로그램 '해피선데이-1박 2일 시종'(이하 '1박 2일') 코너 시청률은 15.1%(전국)를 기록, 동 시간대 예능 프로그램 중 '적수 없는 일요일 예능' 강자임을 증명했다. 특히 융합한 홍차와 코요태의 금강휴게소 쇼케이스 장면에서는 최고 시청률이 16.1%(수도권)까지 치솟았다.

동시간대 예능프로그램 시청률은 MBC '복면가왕' 평균 7.0%(1부: 5.4%, 2부: 8.5%), MBC '궁만남의사' 3.5%, SBS '런닝맨' 평균 5.8%(1부: 4.9%, 2부: 6.7%), SBS '집사부일체' 평균 6.7%(1부: 5.9%, 2부: 7.5%)를 기록했다.

이날 '1박 2일'에서는 김준호-차태현-데프콘-김종민-윤동규-정준영-인턴 이용진이 우리나라 정중앙 충북 옥천-보은으로 떠난 '인간의 욕심'에 관한 보고서 첫 번째 이야기가 펼쳐졌다. 특히 이 곳은 청명한 공기와 정기로 유명한 가운데 멤버들의 마음 속 깊숙이 내재되어 있는 욕심을 정화시키기에 최적의 장소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더욱이 '인간의 욕심'에 관한 보고서는 개인의 욕심이 어떤 화를 불러일으키는지 엿보게 하는 여행으로, 매 순간 예

측과 컨트롤이 불가한 미궁 같은 반전이 연속적으로 펼쳐지며 곳곳에서 웃음을 뽐낼 터트렸다.

멤버들은 아침부터 각자가 장본 음식으로 식사를 하라는 제작진의 말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두 손 가득 찬거리를 구매하고 오프닝을 맞았다. 멤버들은 이번 여행이 쉽지 않을 것임을 예상했지만, 멤버들의 예상마저 뛰어넘어 음식을 입으로 가져간 횡수가 가장 많은 사람이 입수를 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져 웃음을 자아냈다. 순위 발표 결과 정준영이 7위로 가장 낮은 순위를 차지했고 막판까지 데프콘과 막스막하 대결을 펼친 김종민은 총각우 추후 3회와 함께 '식욕'을 가장 절제하지 못한 식욕왕으로 선정됐다. 이후 지하 일박수로 욕심을 털어내는 의식을 갖는 김종민의 입수 모습이 보는 이들을 배꼽 잡게 했다.

이후 멤버들이 방문한 장소는 금강 휴게소. 그 곳에서 차태현은 융합한 홍차, 사무엘, 정진 흥경민과 함께 앞서 '불혹의 꿈'으로 진행한

프로젝트 그룹 융합한 홍차의 신곡 '사람들' 쇼케이스를 가졌다. 특히 이들과 함께 동시 음원을 발매하게 된 코요태가 감쪽 등정해 20주년 맞이 신곡 무대를 펼쳐 안방극장에 어깨 질로 들썩이는 흥을 선사했다. 이와 함께 공개된 두 번째 욕심 테스트는 '출세욕'에 대한 것으로 신곡을 발표한 홍차와 코요태의 음원 순위 대결이었다. 음원 순위가 높은 팀은 불시에 제작진이 찾아가 입수를 해야 했다.

더불어 둔주봉에서 욕심 릴레이 토크가 진행됐다. 특히 둔주봉은 굽이치는 굽이가 만들어진 걸작이자 죄우가 바뀐 한반도 지형 모습으로 모두의 시선을 강탈했다. 이후 멤버들은 각기 자신이 생각한 다른 멤버의 욕심을 털어놨다. 그 결과 정준영은 무욕왕, 김준호와 김종민은 '1박 2일' 최고의 욕심 썩두미자로 등극해 누구의 입수 세레모니가 펼쳐질 것인지 궁금증을 자아냈다. 하지만 모두의 예상과 달리 남의 협담을 가장 많이 한 '경망한 사람'이 입수하기로 했고 이에 욕심 릴레이 1위는 차태현이 선정되며 입수하게 됐다.

韓 독립영화 '벌새', 베를린영화제 제너레이션 대상 수상...상반기 개봉



제69회 베를린국제영화제 제너레이션 14plus 부문에 초청되며 전 세계 언론과 평단으로부터 뜨거운 호평을 받은 한국의 독립영화 '벌새'(김보라 감독, 에피파니&메스 오너먼트 제작)가 심사위원들이 선정한 Grand Prix for the best featured(대상)을 수상하며, 2019년 상반기 개봉을 확정했다.

세계 3대 영화제로 꼽히는 베를린 국제영화제의 제너레이션 부문은 아동, 청소년을 위한 성장 영화를 다루는 부문으로, 전체관객인 Kplus 섹션과 14세 이상 관객인 14plus 섹션으로 구분된다. 올해는 2500편의 작품이 출품되어 총 82편의 장·단편만이 경쟁부문에 진출했고, 그중 '벌새'는 14plus섹션 후보로 올랐다. 청소년과 아동의 목소리로 사회에 울림을 내는 제너레이션 섹션은 그들을 둘러싼 성인들의 세계에 의해 종종 무시되고 억압받는 현실에서 가지는 의미가 크다. 특히 14살짜리 소녀가 냉혹하고

폭력적인 세계를 마주할 때의 내밀한 감정을 묘사한 '벌새'는 영화제로부터 "상업 장면 데뷔작 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의 작품적인 그리고 연출적인 성숙함을 보여 주면서, 주인공의 탁월한 심리묘사를 통해, 관객 모두를 통하게 했다"라는 이유로 초청을 받았으며, 13일 프리미어를 통해 전세계에 공개된 후, Hollywood Reporter로부터 "이주 예리하면서도 섬세하게, 심리묘사가 화제에서의 러브콜도 기대된다"라는 호평을 받았다.

국내에서도 제23회 부산국제영화제를 통해 처음 소개된 '벌새'는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넷박상 및 KNN 관객상 수상을 수상했으며, 제44회 서울독립영화제 집행위원회 특별상 Grand Prix for the best featured(대상)을 수상하며, 2019년 상반기 개봉을 확정했다.

한편, '벌새'는 성수대교가 붕괴된 1994년, 거대한 세계 앞에서 방황하는 중학생 은희가 한문 선생님의 강·단편만이 경쟁부문에 진출했고, 그중 '벌새'는 14plus섹션 후보로 올랐다. 청소년과 아동의 목소리로 사회에 울림을 내는 제너레이션 섹션은 그들을 둘러싼 성인들의 세계에 의해 종종 무시되고 억압받는 현실에서 가지는 의미가 크다. 특히 14살짜리 소녀가 냉혹하고

'로맨스는 별책부록' 악역 없이도 웃기고 울리는 착한 드라마

흔히 '박장'이라 불리는 자극적인 드라마들 속 착한 드라마의 탄생이다. '로맨스는 별책부록'이 악역 없이도 웃음과 울음을 자아내고 있다.

tvN 주말드라마 '로맨스는 별책부록'(극본 정현정/연출 이정효)은 책을 만드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은 로맨틱 코미디. 출판회사 겨우를 배경으로 얽히고 설켜 강단 이(이아영 분), 차은호(이종석 분), 송해린(정유진 분), 지서준(위하준 분)의 사각관계를 그린다.

'로맨스는 별책부록'이 특별한 이유는 악역 없이 시청자들의 웃음과 울음을 책임지고 있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로맨스 극이라면 한 명 이상은 나을법한 악역을 없애고 각 캐릭터가 가진 사연에 집중했다. 특히 삼각관계도 아닌 사각관계에도 불구하고, 차은호를 짝사랑하는 송해린 강단이를 짝사랑하는 지서준마저 매력 있게 그려내고 있다.

송해린, 지서준은 뽐하지 않은 서브남녀 캐릭터다. 차은호를 짝

사랑하는 후배이자 강단이의 상사인 송해린은 개인적인 감정, 욕심을 강요하지 않는다. 차은호가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포퓰러스럽게 변화하거나 강단이를 이유 없이 미워하지 않는다. 후배들에게 악역 높은 선배인 송해린이 강단이와도 벽을 쌓을 것이라 초반 예상은 빗나갔다. 오히려 자신의 마음을 터놓는 등 인간적인 모습을 보였다.

차은호, 지서준의 관계도 마찬가지로, 한 사람을 좋아하는 리아별 관

계에도 짝사랑 상대를 소유하려는 욕심을 드러내지 않는다. 차은호는 강단이를 향한 지서준의 짝사랑, 강단이의 흔들리는 마음 등을 눈치채면서도 지서준에게 강단이를 보내주는 등 일반적인 로맨스극 풀꽃과는 다른 앙상을 보였다.

한 군데도 날 서 있지 않은 '로맨스는 별책부록' 속 관계들은 시청자들이 담당하면서도 깊은 울림을 선사했다.

짝사랑 리아별, 직장상사 등 얼마든지 적대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설정에도 악역 없는 착한 드라마로 힐링 드라마의 좋은 예를 보여 주고 있다.

오늘의 운세 2019년 2월 19일 화요일 (음력 1월 15일)



▶**소띠** 인생은 장난이 아니다. 생일이 짝수 날짜면 여성은 갈등의 길에 서 있는 격. 이유 없이 미워하는 마음 잡아야 할 때. 한번 맺은 인연 노력으로 극복할 것. 별거수 있으니 인내와 노력으로 치유하라. 옛것은 잊어라.



▶**돼지띠** 금전적으로 친한 친구나 가족 간에 언쟁 있을 수 있다. 바, 사, 오, 천 성씨는 진실만이 악임을 알 것. 진실한 마음과 형편이 보이면 문제는 해결된다. 그동안 친했다고 오들도 그를 믿지 마라. 돌다리도 두들겨 보라고 한 말을 명심해야 한다.



▶**황소띠** 자식의 건강 문제가 취직 문제가 걱정에서 멀어져 가는 문제. 그, 사, 오, 표 성씨는 자신이 직접 하는 사업은 진행이 잘 되어 가나 동업인 사업은 힘겨운 상태다. 2, 3, 7, 11월생은 확장은 무리다. 죄, 범, 말씨를 멀리하면 하는 일 더 막힌다.



▶**진띠** 성질나는 대로 말해 놓고 후회할들 소용 없다. 버스 지난 후 손드는 격. 그, 사, 오, 천 성씨는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출판, 주류, 제조, 합성수지 업자는 욕심은 금물이다. 친한 사람일지라도 보증이나 책임질 일 하지 말 것.



▶**원숭이띠** 구름도 없는 하늘에서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겨울에 수박이 있다고 들밭에 나가 수박 찾기 말 것. 지금은 지혜와 인내가 필요할 때다. 그, 바, 오, 천 성씨는 자기 재주에 자기가 당할 수 있다.



▶**뱀띠** 주변을 의식하지 말고 주관 있게 믿고 나갈 것. 3, 6, 9월생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기권하지 말라. 두 번 배신은 없다. 범, 개, 돼지띠는 이상 없겠으나 당신의 마음이 문제일 듯. 선박, 기계, 언론계 종사자는 쿵노래 소리 울리겠다.



▶**말띠** 큰 것을 한꺼번에 얻으려고 잘못된 곳에 손댈 수 있다. 지난 세월 원망 말고 맘 돌려 노력할 것. 그, 오, 천 성씨는 부려 놓은 것 거두어 들일 때 내 것이 됨을 알라. 사람 낳고 돈 잊지 돈 잊고 사람 난 것 아니다.



▶**양띠** 떠나간 사람 연연하다 내 몸 상하는 줄 왜 모르는가. 그, 그, 바, 사 성씨는 잠시 여행 중이라 생각하며 마음을 비울 때 돌아올 수 있다. 성공함을 보이면 상대는 더 멀어질 수 있으니 포근히 감싸줌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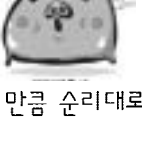
▶**원숭이띠** 여성은 마음에 여유가 생긴다고 탄 곳에 눈돌리지 말라. 슬기롭게 가정이라는 테두리를 좀 더 확고로 이끌어 감이 좋겠다. 1, 6, 7, 9월생은 새롭게 시작하는 일 있다면 손조를 게 풀릴 수 있다. 내조의 힘이 더해진다면 더욱 대성할 수 있다.



▶**닭띠** 벌여 놓은 일 감당하지 못하면서 대외적인 일에만 매달리지 말고 내실 기하라. 3, 10, 12월생은 부부간의 다툼은 서로가 상처만 줄 뿐이니 한발 양보의 미덕을 기할 것. 성질대로 하지 말고 대화로서 사랑 탑 쌓아라. 녹색이 안정을 주는 색.



▶**돼지띠**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에서 놓아주지도 잡지도 못하는 격. 상대의 마음 꿰뚫어 보듯 말을 함부로 하다 서로간의 감정만 대립될 수 있음을 알라. 3, 6, 8, 11월생은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마음을 갖고 새롭게 도전하라. 남, 서쪽이 길 방향.



▶**돼지띠** 가정을 갖고 있으면서 생각과 행동이 엇갈리 가면 어려움만 닥칠 뿐이다. 2, 5, 11월생은 마음고생이 많지만 인내하며 자식에게 신경 쓸 것. 인연은 억지로 맺어지는 게 아닌 만큼 순리대로 흐름에 따라 맞춰 나가라. 바, 오, 천 성씨는 구설수 조심.